2026 3색 3책 인천북 독서운동

2026 3색3책 인천북 독서토론 매뉴얼

지음 | 이다혜, 이정선, 백윤경



어린이

도서관 고양이

최지혜 글
김고둥 그림



청소년

흔들리는 십 대를 지탱해 줄 다정한 문장들

김혜정 지음



성 인

책, 이게 뭐라고

장강명 지음



인천도서관
INCHEON METROPOLITAN LIBRARY

성인 분야

책, 이게 뭐라고



장강명/아르테



책 소개

'읽고 쓰는 인간' 장강명이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를 통해 말하고
듣는 세계에서 펼치는 고군분투가 퍽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2년여간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책과 사람, 직접 만든 작은 독서 공동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전업 작가의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를 향한
작가적 야망까지 진솔하게 써 내려간 40편의 글로 엮었다.



작가 소개

저자 장강명

1975년 서울 출생. 2011년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짧은소설 『종말까지 다섯 걸음』.
연작소설 『뤼미에르 피플』 『산 자들』 등. 장편소설 『표백』 『열광금지, 에바로드』 『호모도미난스』
『한국이 싫어서』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댓글부대』 『우리의 소원은 전쟁』
『재수사』 등을 썼다.

활 동 계 획 안

활동목표

1. 독서 경험을 삶의 경험과 연관지어 재인식해 본다.
2. 독서 이력 그래프로 취향과 자아 정체성을 점검한다.
3.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등장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조망해 본다.
4. 미래를 지향하는 장 · 단기 독서 계획을 세워본다.

활동 개요

활동 1단계	내 인생의 책 - 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활동 2단계	한 줄 평과 토픽 디스커션 –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
활동 3단계	나의 독서 성향 분석과 서가 구성
활동 4단계	발제하기 - '매체의 다양화와 독서', '텍스트힙과 독서 실태'
활동 5단계	카드 뉴스 만들기 – 『책, 이게 뭐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책'

활동 1단계 내 인생의 책 - 책과 관련된 추억 나누기

15분

[준비물 : 주제 도서, 활동지 1]

- '나에게 책이란', '무인도에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나의 반려 도서' 등 자신의 독서 관련 경험을 짧게 기록한 뒤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작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활동2단계 한 줄 평과 토픽 디스커션 –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

30분

[준비물 : 주제 도서]

>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책들이 갖는 위대하고 뛰어난 특성 중 하나로,**
> **작가에게는 '결론'이고 독자에게는 '시작' 인 것이다.**
>
> 마르셀 프루스트

- 독서는 타인의 경험과 사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사고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입니다. 『책, 이게 뭐라고』는 읽기와 쓰기, 출판문화, 독서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읽고 쓰는 세계와 말하고 듣는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며 독서와 창작의 경험을 확장된 문화적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줄 평으로 작가의 경험을 공감하고 평가해 봅니다.

참고자료 : 『책, 이게 뭐라고』 중에서

① 나는 인세로 먹고살고 싶었다. 책을 잘 쓰면 책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문 칼럼이나 시사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부 강연 같은 가욋일에 한눈팔지 말고, 잘 팔릴 만한 재미있는 신작을 쓰자 마음먹었다.
2017년 봄이 되자 그 결심이 아래서부터 흔들렸다. 당대 한국 소설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가 책 괜찮더라'는 평가를 받아도 판매량은 신통치 않다. 애초에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사는 작가가 돼야 인세로 먹고살 만해진다. _ 25쪽

② 독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라면, 누구나 쑥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해, 인생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아니, 말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 경청해 주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경험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말이 많아진다. 생산적인 대화가 오간다.
책은 우리가 진지한 화제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준다. _ 98쪽

③ 나는 오히려 '읽고 쓰면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로는 편리한 면죄부로 쓰이는 것 아닐까 의심한다. 힘들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읽고 쓴다는 쉽고 재미있는 일만으로 자신이 좋은 인간이 되고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_ 156쪽

④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읽고 쓰는 사람들보다 현재를 더 많이 사는 것 같다. 읽고 쓰는 부류만이 수십 년, 수백 년 뒤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읽고 쓰는 이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 대신에 우리는 외로움을 덜 탄다고 할 수 있을까? _ 201쪽

⑤ 내가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서로 싸운다. 그러는 사이에 책은 점점 팔리지 않고, 강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말 좀 하는 지식인 셀럽'에 대한 수요는 늘어간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쓰는 것이 최종 해결책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른다. 인세나 판권 수입을 두고는 번민하지 않는다. 그건 뭐, 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돈이지. 펑펑 쏟아져라, 한겨울 함박눈처럼. _ 223쪽

⑥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나 뜨거운 물줄기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그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구하려는 게 있다. 그걸 품위라고 부를 순 없을 거 같고, 의미? 글쎄..... 그렇게 불러야 할 테지만,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발견하려는 우주적 진리, 혹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삶의 중심과는 조금 다르다. 나는 내가 좇는 그 '의미'가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나보다 크고 나의 바깥에 있으면서 내 안에도 있는 무엇. _ 248쪽

활동3단계 나의 독서 성향 분석과 서가 구성

⏰ 20분

[준비물 : 활동지 2, 활동지 3]

- 독서 성향 그래프로 자신의 독서 활동을 평가해 보고, 2026년~2027년 1년간 읽을 책과 향후 10년 동안 꼭 읽고 싶은 책으로 가상의 서가를 채워 보세요.

활동4단계 발제하기 - '매체의 다양화와 독서', '텍스트힙과 독서실태'

35분

[준비물 : 활동지4]

* '2025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의 종합 독서율은 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주제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체의 다양화'와 20대의 '텍스트힙'이 독서 실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ㅈ대해 발제를 해보세요.
* 뇌과학자들에 의해 뇌의 기능과 독서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한 추론도 해보세요.

< 자료1 >

미국 터프츠대 아동 발달 학과 교수이자 인지신경 과학자인 매리언 울프는 『책 읽는 뇌』(원제『프루스트와 오징어』로 재출간)에서 인간의 뇌에는 독서를 위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인간이 문자를 읽고 그 안의 상징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뇌 회로의 연결이 필요한데,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와중에 뇌가 기존 회로를 재편성해 이를 해독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문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뇌가 독서에 맞춰 진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은 표의음절문자에 속하는 고대 수메르어를 읽는 사람과 중국어를 읽는 사람의 뇌는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들 문자는 물체 인지에 사용되는 후두와 측두의 주요 부위와 좌 · 우뇌에 있는 시각 영역을 넓게 활성화시킨다. 반면 매리언 울프의 표현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 체계인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음소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뇌의 측두인 두정부 주변이 특히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리스어 알파벳 외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하나 더 꼽는다면
혜안을 가진 통치자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한국어의 한글을 들 수 있다.

- 『프루스트와 오징어』 매리언 울프 / 이희수 / 어크로스 / 2024. 6, 122쪽

< 자료2 >

도호쿠대학 가레이 의학 연구소는 1990년대부터 자기공명 영상(MRI)장치를 활용하여 뇌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왔다. 또한 뇌기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뇌기능 매핑'연구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 책을 읽을 때 '사고하는 뇌'라 불리는 '배외측 전전두엽(생각하거나, 배우거나, 창조적 작업 시 활성화 되는 부분)'과 후두엽(시각 정보 처리)에서 측두엽 하현(어휘를 포함한 기억 처리)에 걸친 뇌의 거의 전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는 우리 뇌의 본능적 기능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뇌에 새로운 자극과 보상을 준다. 즉, 독서는 뇌 발달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디지털 기기로 읽었을 때는 어휘 습득이나 문장의 이해, 응용력 습득 정도가 종이책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심리학 연구에 의한 결과이다.

-『독서의 뇌과학』, 가와시마 류타, 황미숙 역, 현대지성, 2024 참조

< 자료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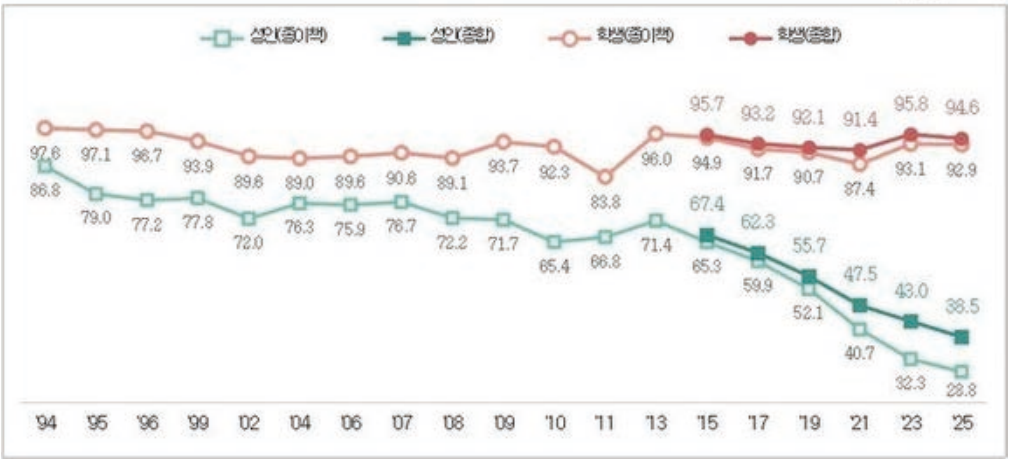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 독서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38.5%로 2023년 조사보다 4.5% 포인트 감소했다. 성인이 지난 1년간 읽은 평균 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보다 1.5권 줄었다. 반면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2023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40대의 연간 독서율은 41.0%로 2023년보다 6.9%p, 50대는 26.9%로 10.%p 떨어졌지만 20대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75.3%로 2023년 74.5%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독서율이 오른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20대의 독서율 증가에는 텍스트힙과 매체의 다양화도 영향으로 준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 하락은 정책 과제로 남았으나, 20대 청년층의 독서율 증가와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 이용 확대는 독서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신규 독자층 유입 및 향후 독서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독서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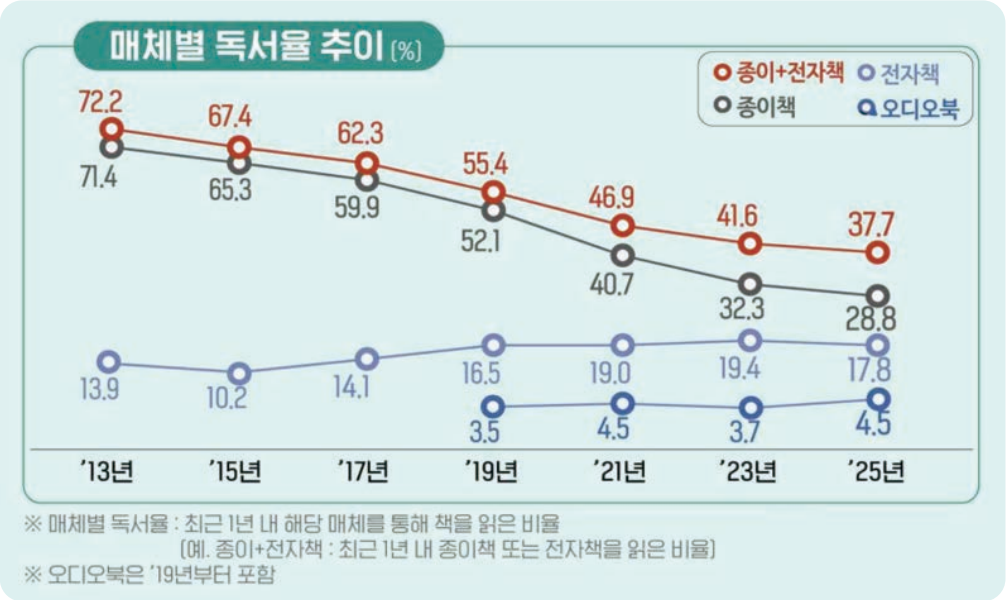


텍스트힙 text 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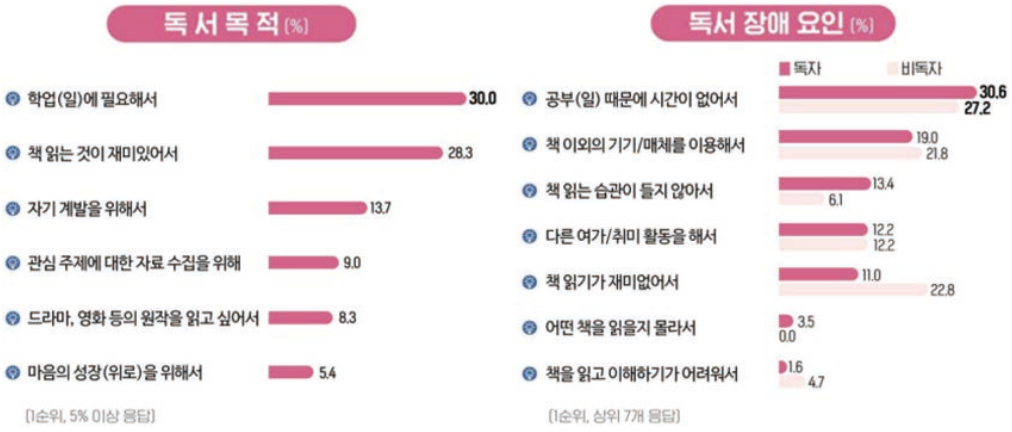
젊은 층이 일종의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있다는 뜻의 은어인 '힙하다'를 합친 말.

>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독서 공유(←텍스트 힙)'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책을 의미하는 '텍스트'에 멋있다는 의미의 '힙하다'가 합쳐진 말이다.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로 모든 것을 접하기 시작한 '디지털 네이티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공유하며 표지나 밑줄이 쳐진 일부를 찍어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국민일보, 2024년 8월》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2024. 10.)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 문체부 누리집>



활동5단계 **카드 뉴스 만들기 – 『책, 이게 뭐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책'** 20분

[준비물 : 활동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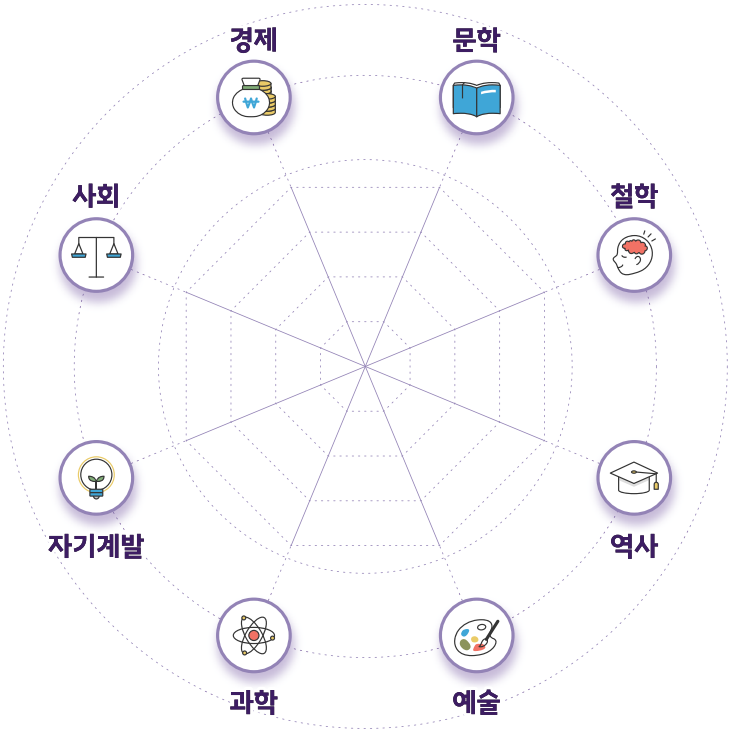
- 카드 뉴스는 정보를 슬라이드 형태로 나눠서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짧은 문장, 이미지, 색상 등의 구성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SNS, 블로그, 마케팅, 브랜딩 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핵심 내용을 빠르고 간단하게 전하기 좋은 홍보 방식이므로 적절한 분량과, 공감이 가능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 카드 뉴스와 달리 정성스럽게 손으로 한 장씩만 만들어 봅니다.
- 『책, 이게 뭐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의 담고 싶은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보세요.

활 동 지

활동지 1 내 인생의 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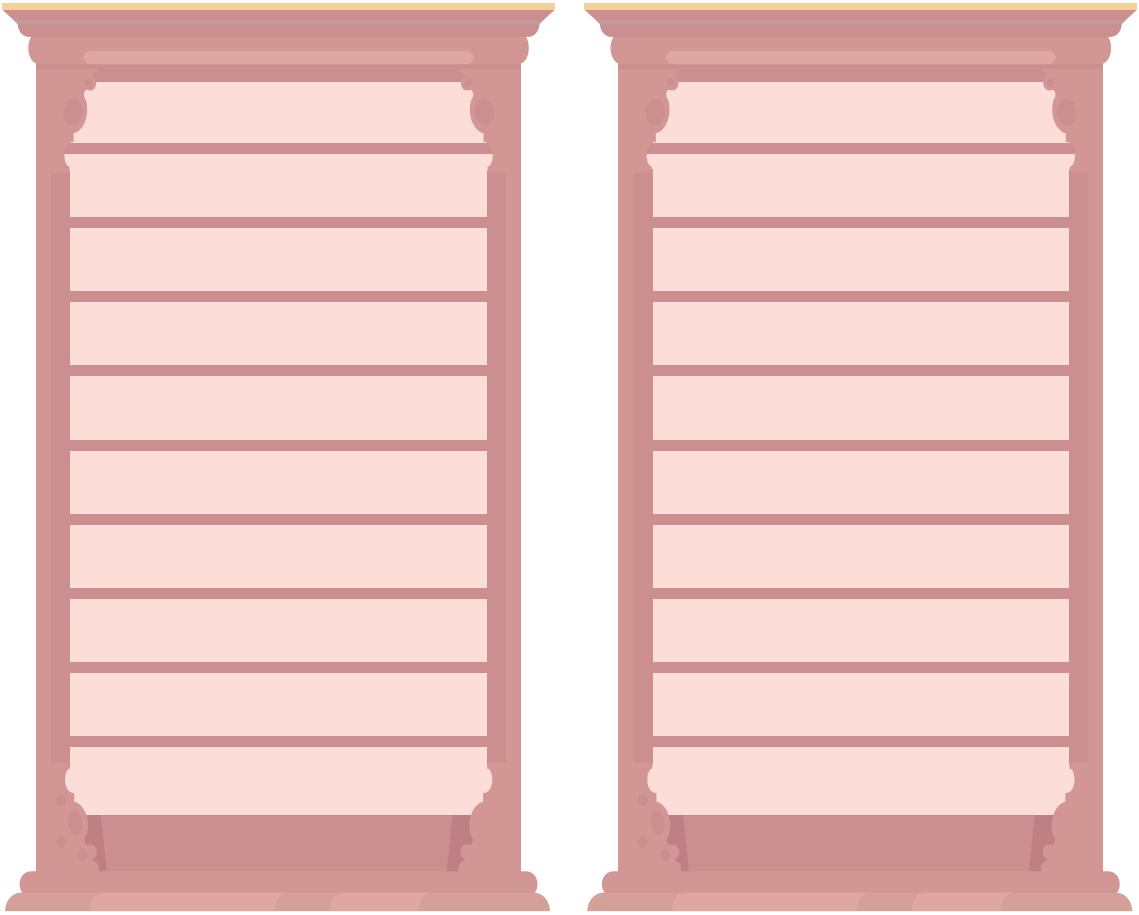


활동지 2 나의 독서 성향 분석표



활동지 3 가상 서가 구성하기

2026년~2027년에 읽고 싶은 책	향후 10년 동안에 읽고 싶은 책



활동지 4 발제하기 - '매체의 다양화와 독서', '텍스트힙과 독서실태' 등

발제 1	
발제 2	

활동지 5 카드 뉴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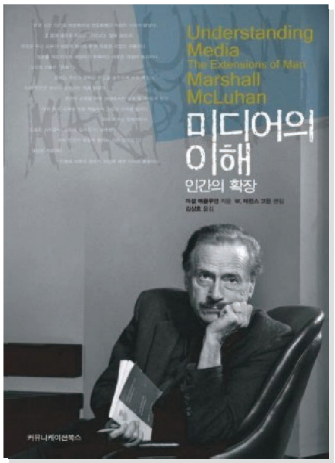


『책, 이게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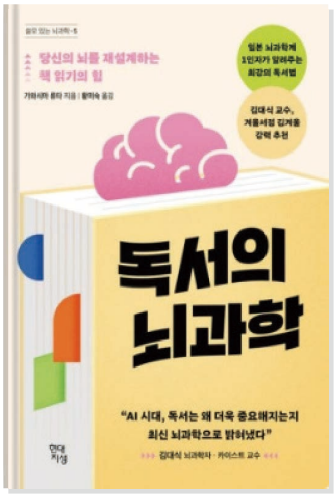


내가 만들고 싶은 책 (제목:)

함께 읽으면 좋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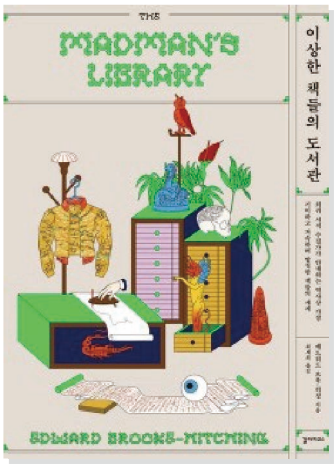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마셜 매클루언 / 김상호 번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2



독서의 뇌과학
가와시마 류타 / 현대지성 / 2024



글쓰기의 모험
황산 / 북바이북 / 2020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
에드워드 브룩-히칭 / 최세희 번역
갈라파고스 / 2024



2026 3색3책 인천북 독서토론 매뉴얼



QR코드로
바로가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독서토론 매뉴얼을 혼자 활용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토론 특강을 참고하세요

* 독서토론 매뉴얼을 저술한 독서토론 전문강사님들께서 직접 매뉴얼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 온라인 특강은 인천도서관 YouTube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녹화된 강의는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도서관 YouTube 채널 주소**
  https://youtube.com/c/인천광역시도서관

매뉴얼 수가 부족하거나 지면이 너무 작다면, [3색3책 인천북 독서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 **3색3책 인천북 독서지원 온라인 플랫폼 위치**
  인천광역시대표도서관 누리집 > 광역대표도서관 > 3색3책 인천북 > 3색3책 인천북이란?

인천도서관
INCHEON METROPOLITAN LIBRARY